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전수조사

광주학생운동 90주년 앞두고

보훈처 포상 심사기준 확대

광주·전남 6곳 등 전국 55개교

내년 광주학생독립운동(11월3일) 90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에 나선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확대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5일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을 위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추진 배경은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가 새로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6월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포상 기준은 '수형·육교 3개월 이상'으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은 해당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놴다. 또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서 특별히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166개 학교 중 학적부가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돼 있

는 것으로 확인된 55개 학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고(옛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자연과학고(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여고(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나주초(나주공립보통학교·나주농업보습학교), 전남대 여수캠퍼스(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 등 총 6곳이다.

보훈처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2개 학교 학적부를 먼저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생운동이 시작된 광주지역부터 서울, 경남 순으로 해당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된 22개 학교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으로, 이 중 8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학생 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학생독립운동으로 확인된 퇴학자는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이 되는 내년 학생운동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기존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형사처벌이 없으면 포상이 어려웠다"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퇴학 사실만으로 유공자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독립운동 유공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427명으로, 건국훈장 246명, 건국포장 56명, 대통령 표창 125명으로 구성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한국가스공사·해양도시가스 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저소득 가정에게 보낼 김장을 담그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여수지역 고교 2015년 이어 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교사 컴퓨터서 학생이 빼내

여수의 한 고교에서 올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6월에도 교사가 제자인 조카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된 곳이어서 학사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의 모 고교에서 치러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과목으로 3학년 학생 A군이 교사의 컴퓨

터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지 유출은 지난달 16일 학생들이 전남교육청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제보 다음 날인 17일 A군과 학부모를 불러 시험지 유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도 21~22일 감사를 벌였으며 시험지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를 빼낸 A군에 대해서는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자로 퇴학 조치했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A군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내신 등급을 재조정했다.

내신 등급이 조정된 학생은 국어 3명, 영어 2명, 일본어 2명으로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성적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시험지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 다른 학생에게 유출되지 않은 단독 범행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야간 자습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의 PC에서 시험지를 USB에 담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를 포함 시험관리 전반을 살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팬살에 붙이지 마세요”

소비자원 핫팩 주의보

휴대하기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겨울철에 애용되는 대표적 온열용품인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등 피해사례가 잇달아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에서 2016년 7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44건)보다 29.5%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총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49.2%), 3도 화상이 55건(43.0%), 1도 화상이 10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심각한 2도나 3도 화상 비율이 92.2%였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저온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핫팩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 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표시가 생략되거나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매 시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팬살에 직접 붙여 사용하지 않으며 ▲취침 시 사용하지 말고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6	달뜨기	06:01
해질	17:20	달짐	16:49

밤부터 기온 '뚝'

대체로 흐리고 아침 한때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온뒤 갬	4/8	보성	비온뒤 갬	3/8
목포	비온뒤 갬	5/9	순천	비온뒤 갬	5/10
여수	비온뒤 갬	6/9	영광	비온뒤 갬	3/8
나주	비온뒤 갬	3/9	진도	비온뒤 갬	4/9
완도	비온뒤 갬	5/9	전주	비온뒤 갬	1/8
구례	비온뒤 갬	3/8	군산	비온뒤 갬	1/8
강진	비온뒤 갬	4/8	남원	비온뒤 갬	1/8
해남	비온뒤 갬	4/8	흑산도	비온뒤 갬	6/10
장성	비온뒤 갬	3/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1.0~2.0
	면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2.0~3.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2.0~3.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25	01:04
	19:01	13:45
여수	01:57	08:37
	14:35	20:33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	☁	☁	☀	☁	☀	☀
-1/0	-4/2	-4/2	-5/5	1/6	-1/6	-1/6

“소주는 난방용 석유와 분리, 맥주는 얼지 않게 보관”

식약처 겨울철 주류 보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겨울철 한파에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적절한 온도와 장소에 보관하지 않으면 나쁜 냄새가 나거나 혼탁물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맥주는 겨울철 유통과정에서 유리병이 얼어 파손될 수 있고,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 혼탁 현상이 일어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탁 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한다. 인체에는 해롭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면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상한 냄새(석유 냄새)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확물질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소주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스카이에듀 11일 조선대서 정시 전략 설명회

입시전문 광주스카이에듀 학원이 오는 11일 오후 7시 조선대 서석홀에서 대입 정시모집 전략 설명회를 연다. 학원측은 이날 수능 실재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전략을 제공하는 ‘2019 수능 정시 최종 설명회’와 내년도 수능을 다시 도전할 재수생을 위한 ‘2020학년도 재수선행반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설명회는 정광관 스카이에듀 총

원장, 은장원 광주원장을 비롯 서울지역 입시 전문가들이 나서 ‘2019 정시 지원의 최종전략’을 설명한다. 1부에서는 2019학년도 수능결과 분석 및 정시지원 예측과 함께 배치표 활용 방법 등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주요 대학별 정시 지원 전략을 공개하고 서울권 대학 진입 가능성 및 정시 전형의 특색전략을 설명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의 힘이 되겠습니다!

2018년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결과

홍보동영상제작지원 5개사

카탈로그제작지원 5개사

온라인마케팅지원 6개사

경영컨설팅지원 6개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 (062)971-8331